『經國大典』 판본 연구*

양 혜 원**

1. 머리말
2. 『경국대전』 판본 층위와 주요 유통본
3. 을사대전의 판종과 대표 판본의 선정
4. 을사대전 대표 판본의 종류와 특징
5. 맺음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經國大典』의 대표적 판본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에 『경국대전』 원자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 자료 선정에 있어 판본 선택과 교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경국대전』 판본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하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인 세조~성종 15년까지의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들로 경인대전 - 신묘대전 - 갑오대전 - 을사대전으로 구분된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경국대전』 전체 조문을 확정하여 간행, 시행한 성종 15년 을사대전의 판본들이다.

먼저 2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국대전』 판본의 두 층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널리 참고 되어온 판본들을 분석,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각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경국대전』의 현존 판본 66건을 모아 계통별로 정리하고, 간행시기 순으로 '15세기 간행 신묘대전 - 15세기 간행 을사대전 - 16세기 간행 을사대전 - 17세기 간행 을사대전 - 18세기 간행 을사대전'의 대표 판본을 6가지 계통의 7가지 판본으로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각 계통별 판본의 구체적 조문을 몇 개 뽑아 각 판본의 정확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의 내용 변화를 구체적 조문을 통해 확인 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17세기 이전 을사대전 판본을 3건 확인하여 시간적으로 『경국대전』 완성 당시와 멀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내었다. 셋째, 대표 판본간 구체적 조문 비교를 통해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사고본이나 흔하게 보이는 만력본은 임진왜란 이후 급하게 제작되면서 다른 판본에 비해 잘못된 글자가 많았으며, 이 판본을 참고한 기존 연구성과들에서 오류의 결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경국대전』연구는 무엇보다 현존 판본을 수집·교감하여 조문 정본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경국대전, 신묘대전, 을사대전, 정본화, 초주갑인자, 사고본, 내사본, 운각주자본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經國大典』의 대표적 판본들을 검토하여 간행 시기별로 배열하고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에『경국대전』원자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 자료 선정에 있어 판본 선택과 교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경국대전』은 조선 통치체제의 기본 틀이다. 세조대 그 편찬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 더 이상의 수정을 금하고 성종 16년(1485) 을사년부터 시행한 이른바 '乙巳大典'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경국대전』이다. 이 대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하나의 규범 체계로 설정된 만세의 성법이며 고려와 조선의 시대를 가르는 통합 법전으로 평가된다.

법전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명확한 條文'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경국대전』의 조문은 명확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는『경국대전』연구가 갖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법전 판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결과 그 정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경국대전』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모든 판본은 을사대전의 판본으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전제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1] 그러나 필자는『경국대전』의 내용을 검토하던 중 책에 따라 내용의

1) 中樞院調査課編, 1936『李朝法典考』, 朝鮮總督府中樞院, 67-68면에서 '각종『경국대전』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문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도 있었고, 몇몇 글자의 차이가 눈에 띄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이는『경국대전』의 다양한 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고서의 수집과 발굴에 따라 새로운 판본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든 판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기존 연구의 언급을 별 의심 없이 연구의 전제로 삼는 경향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의 모든 판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연구자가 참고하는 판본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경국대전』은 기존『經濟六典』[2)]과 달리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조문이 소략하고 함축적이므로, 한두 글자의 차이로도 조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고증 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 대상의 원형을 간과한 것으로, 오자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장차 무너질 전제 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국대전』의 원형이란 결국 수정이 금지된 성종 15년 을사대전 조문의 글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경국대전』의 대표적 판본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조문의 글자들을 서로 교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본을 조사하던 중,『경국대전』판본에 두 가지 층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경국대전』내용이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인 세조 ~ 성종 15년까지의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들이고, 다른 하나

후세에 전하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라고 하고, 朴秉濠, 1974,「經國大典의 編纂과 頒行」,『한국사』9(국사편찬위원회 편)에서 '오늘날 전해 오는 經國大典은 이 乙巳大典이며, 그 이전의 經國大典과 大典續錄은 전해 오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이래,『경국대전』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모든 판본은 을사대전의 판본으로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새로운 판본이 출현하고 있음에도,『경국대전』의 다양한 판본의 실태나 새로운 판본의 등장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경국대전』조문의 정본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경제육전』관련 대표적 연구성과로 윤국일, 1986『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서원 영인본) ; 전봉덕, 1989『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 ;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1993『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2007『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참조.

는 더 이상의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경국대전』전체 조문을 확정하여 시행한 성종 15년 을사대전의 판본들이다.

전자와 관련하여는 기초적 연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필자는 판본을 검토하던 중 1990년대 초 발견되어 2007년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된『경국대전』이 신묘대전임을 판정하였다.[3] 이 자료는 禮典만 남은 영본이기는 하나 신묘대전임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므로, 현재 모든『경국대전』이 을사대전이라는 기존의 전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위에서 제시한『경국대전』판본의 두 층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널리 참고 되어온 판본을 분석,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각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경국대전』의 판본을 모아 간행 시기별 계통을 정리하고, 4장에서 각 계통별 판본의 구체적 조문을 중심으로 글자의 정확도를 점검하였다. 즉, 본고는『경국대전』신묘대전에 더하여, 최종 완성본인 을사대전의 대표적 판본들을 추려내고 그 특징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2.『경국대전』판본의 층위와 주요 유통본

『경국대전』은 육전의 체제를 갖추고 조선 통치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가경영의 상징적 징표였으며, 중앙집권체제 재정비 측면에서 신국가 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법제적으로 압축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경국대전』의 편찬과 간행은『경제육전』의 경험을 토대로 세조대『경국대전』편찬의 틀이 갖추어지며, 예종과 성종대를 지나면서 수정, 간행되었다.[4] 오랜 기간 동안 편찬과

3) 양혜원, 2017「『經國大典』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經國大典』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규장각』50.

4) 이하 경국대전의 반포와 수정 간행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 참조. 內藤吉之助, 1937「經國大典の難產」,『朝鮮社會法制史硏究』(京城帝國大學法學會 編), 岩波書店; 윤국일, 1986『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서원 영인); 한상권, 1994「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역사와 현실』13; 정호훈, 2004「조선

수정이 이루어진 만큼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체제 정비과정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최종 완성된 을사대전은 이후 祖宗成憲으로서의 무게를 가지며 오랫동안 大典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전해오는 판본 역시 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경국대전』의 판본을 조사한 결과, 그 판본에는 크게 두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첫 번째 층위인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들의 경우 법전의 내용이 계속 수정·보완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개정 시행 단계별로 법전 조문의 내용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신묘대전 禮典과 을사대전 禮典을 비교해 보면 그 첫머리부터 내용에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5] 최근 연구에서 『경국대전』의 개정 간행 단계상 기존에 논란이 있던 기축대전과 신묘대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학계에서 통상 불리던 『경국대전』의 개정 시행 단계별 명칭 문제를 시행년 기준으로 통일하여 재명명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6] 이에 의해 『경국대전』이 경인대전 - 신묘대전 - 갑오대전 - 을사대전의 순으로 수정 간행, 시행되었다고 본다면, 현재 판본이 발견된 것은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갑오대전의 경우 일제시대에 발견된 바 있으나[7]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에 있어

전기 법전체제의 정비와 『경국대전』의 성립」, 『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양혜원, 위의 논문.

5) 양혜원, 앞의 논문, 339면.

6) 양혜원, 앞의 논문, 354-357면.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기축대전과 신묘대전의 존재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서술되었을 뿐 아니라 시행 단계별 『경국대전』 명명 기준이 편찬년과 시행년으로 혼용되고 있어 혼동을 유발하므로 명명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신묘대전의 존재가 확인된 바, 『경국대전』을 시행년 기준으로 재명명하여 예종 1년(1469)인 기축년에 편찬하여 이듬해 경인년(1470)부터 시행한 것을 '경인대전', 경인대전을 수정·보완하여 성종 2년(1471) 신묘년부터 시행한 것을 '신묘대전', 성종 5년(1474) 갑오년부터 시행한 것을 '갑오대전', 성종 16년(1485) 을사년부터 시행하며 이후 수정을 금한 『경국대전』 최종본인 '을사대전'으로 정리하고 있다.

7) 中樞院調査課編, 앞의 책, 68면 다음 장에 甲午大典刊本의 한 면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당시 경성제국대학교수였던 藤田亮策 소장으로 吏典과 戶典이 약간씩 남은 영본이었다고 한다.

8)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83「朝鮮王朝法典 解題」, 『朝鮮王朝法典叢書 經國大典』, 亞細亞文

향후 『경국대전』 개정 시행 단계별 판본이 더 나올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층위인 최종 완성본 『경국대전』으로서 을사대전의 판본은 여럿 존재한다. 이는 『경국대전』이 경인대전, 신묘대전, 갑오대전, 을사대전 등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되어 간행되었다는 내용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을사대전은 성종 15년(1484) 그 내용의 수정이 금지된 이래[9] 영조 22년(1746) 『續大典』이 간행될 때까지 무려 260여 년 간 명실상부한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조문의 원형이 유지된 만큼, 『경국대전』은 그 사이 수차례 복각되거나 새로 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전 내 글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같은 을사대전 조문에 대한 글자 차이라면 그것이 단순 오자인지 의도적 수정인지, 을사년 시행 당시 조문 원형의 추적이 필요하다.

을사대전 판본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은 관련 연구들에서 그간 널리 참조되어 온 『경국대전』 판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자들이 보아 온 판본은 몇 가지로 한정되나 이 책들의 조문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조하는 책에 따라 연구결과의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간의 대표적 『경국대전』 연구 성과에서 어떤 판본을 참조하였는지 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학계의 『경국대전』 연구자들이 가장 널리 이용해온 을사대전은 다음의 몇 가지가 대표적이다. 일명 '史庫本'과 '萬曆本', '芸閣鑄字本'이 그것이다.

사고본은 태백산 사고본[10]과 오대산 사고본[11]이 있으며 두 종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萬曆四十一年(1613) 九月內賜經國大典一件 太白山實錄史庫上'이라는 內賜記가 남은 完帙의 史庫本이라는 점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이다.[12]

化社, 20면에 의하면 갑오대전 영본이 발견된 바 있다고 하나 현재 그 소재가 묘연하다고 한다. 필자 역시 그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찾지 못하였다.

9) 『成宗實錄』 권165, 성종 15년 4월 8일 甲子; 『經國大典』 禮典 雜令 "官吏不謹守成法 輒以己意輕改舊章者 依律論."

10)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 1864.

11)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 2096.

만력본은 '萬曆三十一年(1603)三月日新刊'이라는 명확한 간기가 있으면서 6권 4책이 모두 남아있는 완질이다. 규장각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만력 31년에 간행되어 선행연구들에서 '萬曆本'으로 불러왔다. 李宗翰本・金民禧本・稼隱堂本・兵部本 등으로도 지칭되며 흔한 판본으로도 알려져 있다.[13]

운각주자본『경국대전』은 규장각(청구기호 奎1298)[14] 뿐 아니라 성균관대 존경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역시 완질을 갖추고 있어 종종 연구의 참조 대상이 되어 왔다.[15] 일명 芸閣本, 藝閣本 등으로도 불려왔다.

문제는, 연구자들에게 주로 이용되는 사고본, 만력본, 운각주자본을 비롯한 완질의『경국대전』들은 모두 17세기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연구의 경우『경국대전』조문을 연구하면서 정조 9년(1785) 간행본『大典通編』이나 고종 2년(1865) 간행본『大典會通』에 수록된『경국대전』원문을 참조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 모든『경국대전』의 유통본이 乙巳年 대전의 동일본'이어서 내용이 같다는 전제를 검증 없이 수용한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을사년『경국대전』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100여 년, 혹은 300~400년 이상 흐른 뒤 간행

---

12) 태백산 사고본인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1864에는 앞표지 안쪽에 '萬曆四十一年(1613) 九月 內賜經國大典一件 太白山實錄史庫上'이라는 묵서가, 오대산 사고본인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 2096에는 '萬曆四十一年(1613) 九月內賜經國大典一件五臺山實錄史庫上'이라는 묵서가 남아있다. 두 본은 현재 규장각 귀중본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기호 奎貴1864의 원문 이미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13)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83, 위의 책, 20면.

14) 이 책은 규장각에서 1997년『규장각자료총서(법전편)』으로 영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

15)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최근 2017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조선시대 법령자료 DB》에서 제공하는『경국대전』의 저본 역시 운각주자본인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 1298이다. 이 奎 1298은 규장각 홈페이지 해제에 1661년 간행본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종 1년(1721) 간행된 책이다. 이와 관련하여는 뒤에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조선시대 법령자료 DB『경국대전』소개 : http://db.history.go.kr/law/introduction/intro__jlawa100.html ; 규장각『경국대전』奎 1298 해제 :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2018년 10월 30일 최종 검색)

된 책들이다. 그 시기에는 이미 법제의 내용이 바뀌거나 사문화 된 조문들도 있어 원래 조문의 글자가 틀리더라도 당시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간행본을 참조할 경우 자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15세기 후반 완성된『경국대전』조문의 원형을 보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실제로 판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판본간 글자의 차이가 한 두 글자의 단순한 오자를 넘어 내용의 차이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경국대전』은 법전이며 그 조문 자체가 매우 축약적이기 때문에 판본마다 조금씩 다른 글자의 차이는, 후술하듯 연구자가 어떤 판본을 열람했느냐에 따라 같은 조문의 내용이 다르게 읽히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경국대전』의 조문을 꼼꼼하게 따져 최종 반포 당시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 작업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처음 지적한 사람은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나이토 키치노스케[內藤吉之助, 1894~1946]이다. 나이토는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으로 조선 법전을 조사할 때『경국대전』의 여러 판본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판본마다 다른 글자의 차이에 주목하고 조선시대의 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본을 교감하여『경국대전』의 정본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이토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으로 1613년 인출된 태백산사고의 內賜『경국대전』(현 규장각 소장 奎貴 1864)과, 이 사고본과 같은 판이나 1613년 이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소장본을 기준으로 삼아, 기타 여러 판본을 참조·열람하고 전체 조문을 비교하여 그 校訂本을 만들었다.[16] 그것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經國大典』이다.[17]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경국대전』의 교정본[18]을 출간한 이래 우리말로의 번역

16) 나이토의 교감에 사용된『경국대전』의 각종 판본에 대하여는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經國大典』, 朝鮮印刷株式會社, 5-11면, 校訂經國大典例言 참조.

17)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經國大典』, 朝鮮印刷株式會社.

18) 현재 Krpia(http://www.krpia.co.kr)에서 제공하는『경국대전』원문 이미지가 이 총독부 교정본『경국대전』이다. 아울러 경인문화사에서 한국학 기본총서 제7집『조선왕조법전집』1에『경국대전』으로 영인한 책도 바로 이 총독부 교정본이다. 최근에는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 콜렉션 사이트[國立國會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http://dl.ndl.go.jp/info:

이 여러 차례 이루어 졌다. 국역본으로 가장 널리 참조되는 책은 법제처와 윤국일, 정신문화연구원이 각각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의 경우 판본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번역이 진행되는 바람에, 어떤 본을 열람하는가에 따라 조문 해석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가장 먼저 번역을 시도한 곳은 법제처이다. 법전 해석과 주석의 권위를 가지고 1962년 출간된 법제처의 번역본은 계속되는 수요로 몇 차례에 걸쳐 재간행되었다.[19] 법제처에서 나온 1978년 일지사 간행본의 책말에는『경국대전』의 원문이 영인되어 있다.[20] 해당『경국대전』을 자세히 살피면 자료 첫 면에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영인 상태로는 판독이 잘 되지 않는 장방형의 인장[21]이 찍혀 있으며, 책 말에 '辛丑六月 日 芸閣鑄字重印'의 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인본의 경우 판독이 잘 되지 않는 장방형의 인장 첫 글자에 사람인 변(亻)이 얼핏 보인다. 또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 찍혀 있으므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규장각 소장『경국대전』가운데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侍講院'의 인장이 찍힌 운각주자중인본『경국대전』(청구기호 奎 1516)이 있어, 이 자료를 영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법제처 번역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 간행본 책말[22]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과 '李萬育印', '稚和'의 소장인이 찍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芸閣鑄字重印本이 영인되어 있다. 각각 영인된 위의 두 본은 소장처만 다를 뿐 판본 자체는 芸閣鑄字重印本으로 같다.

그러나 법제처의 번역과 책 뒤에 영인된 판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

---

ndljp/pid/1232807)에서도 총독부 교정본『경국대전』의 전체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19) 법제처는 1962년에 경국대전을 上·下권으로 나누어『法制資料誌』4집·6집에 국역해 실었다. 이것을 부산일보사에서 단권의 책으로 묶어 발행하였는데, 이를 다시 1978년에 일지사에서 출간하였고(법제처, 1978『經國大典』, 일지사) 이후 수요가 계속 있자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활자를 좀 더 크게 하여 재출간하였다(법제처, 1993『經國大典』, 한국법제연구원).

20) 법제처, 1978, 위의 책, 579-727면.

21) 이 세 개의 인장은 앞의 책, 579면에 수록된『경국대전』제1면 상단에서 확인된다.

22) 법제처, 1993, 앞의 책.

대 禮典 度僧 丁錢價를 확인해 보면, 법제처의 번역은 '20필'이나 뒤에 영인 수록된 판본에는 '三十匹'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경국대전』 해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간행한 교정 『경국대전』을 법제처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하였다.[23]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조문의 번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법제처 번역은, 吏典의 京官職 正2品 衙門 六曹 吏曹 文選司 담당업무를 '贈職'이라 하고, 예전 도승의 정전가는 '二十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경국대전』의 여러 판본 중 한 판본 내에서 '贈職'과 '二十匹'이 동시에 기재된 것은 한 종도 없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교정본 『경국대전』의 본문은 각각 '僧職'과 '二十匹'로 되어 있으며 이와 다른 판본의 글자는 欄外註로 부기해 두었다. 법제처 번역은 왜 원문과 달리 이 글자들, '贈' '二' 등을 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추측컨대 이 번역은 총독부의 교정본을 참조하거나 『경국대전』의 몇몇 판본을 참조하여, 번역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글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 1986년 북한에서 윤국일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24] 윤국일의 저서는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을 함께 다루고 있어 조선 초 법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고 있다. 애초에 북한에서 출간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원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출간하거나, 법조문과 대전에 대한 연구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출간하였다.[25] 윤국일은 머리말에서 '『경국대전』의 편찬 경위를 개괄하여 『경국대전』 사료의 형성 과정을 해명하고 그 사료적 성격과 의의를 밝히는 한편 이미

---

23) 『경국대전』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奎 1516 해제. 사이트주소 :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최종검색일 2018. 10. 30.)

24)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북한에서 출간된 바 있다. 이 저서는 1990년 신서원에서 〈북한국역총서〉로, 1991년 여강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를 2001년 여강출판사에서 『역주 경국대전』이라는 서명으로 재출간하였다. 현재 krpia.c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국대전』 번역은 윤국일의 번역으로, 『역주 경국대전』의 전문이 서비스 되고 있다.

25) 윤국일, 1998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신서원은 윤국일의 『경국대전 연구』에서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사료 연구」 부분만 분리하여 책으로 낸 것이다.

없어진『경국대전』계통의 여러 수정본들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가능한 한 원형을 복원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 하여 여러 판본을 참조하여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서 법제처 번역본과 같은 기준으로 吏典의 '僧職' 및 禮典 정전가액 등의 글자를 확인했을 때, 각각 '僧職', '20필'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저본으로 만력본 혹은 사고본 정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국일 번역의 경우 번역의 저본이 무엇이었는가 보다, 정전가에 있어 '20필'을 선택하여 번역함으로써 이후 연구자들에게 역시 '二十匹'로 기재된 사고본의 신뢰도를 높여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비슷한 시기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기존 번역본 주석과 내용의 미흡함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해당 분야 전공자들이 각각 六典을 나누어 맡아 번역편[26]과 주석편[27]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경우 범례에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내사본『경국대전』[28]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고 다른 본을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9] 주석편 해제 말미에 을사대전의 판본을 소개하면서 다섯 종을 나열하고 있는데,[30] 이는 앞서 나이토가 교정『경국대전』을 낼 때 참조한 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판본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개한 조선총독부의 교정본『경국대전』과 법제처, 윤국일, 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의 세 번역본은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며 조선시대 법전과 관련한 기본 참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1]

위 번역본들은 한문 법전을 한글로 풀어 제공하여 손쉽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

---

26)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7『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8) 일명 사고본.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 1864; 奎貴 2096.

29)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 앞의 책, 범례 참조.

3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7, 앞의 책, 17-18면.

31) 이 외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韓國古典國譯委員會, 1960『國譯 大典會通』, 高麗大學校出版部를 간행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 더하여,『경국대전』중 吏典만의 번역과 더불어 상세한 주석을 달은 연구 시리즈도 있는데, 김성준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동방학지』74~88에 연재한「經國大典 吏典 註釋」(1)~(9)가 그것이다.

게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를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역작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 깊이 고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경국대전』의 판본마다 다른 글자가 있음에도 참조한 판본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참고한 『경국대전』의 판본이 다를 경우 같은 조문에 대해 다른 해석을 붙이거나, 이를 인용한 연구 성과에서 다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吏典 京官職 正2品衙門 吏曹 文選司의 역할과 禮典의 度僧條의 내용이다.[32] 吏典과 禮典의 몇몇 조문에서 확인한 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전제하고 있는 '을사년 대전 판본 내용의 동일함'이라는 전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글자 하나하나를 따졌을 때 결정적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 갖는 법전으로서의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글자의 차이들이 과연 판본에 따른 단순 오자인지, 오자라면 이것이 반복되었는지 아닌지, 왜 그랬는지 등에 대하여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사고본과 만력본, 운각주자본은 규장각 소장의 완질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자료로 널리 참고되고 있다. 이들 판본간에 종종 글자의 차이를 보임에도, 특히 사고본은 높은 신뢰도로 인해 번역의 저본이 되어왔다. 또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러 판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본 『경국대전』의 조문을 의심 없이 연구의 전제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갈 필요가 있다.

3. 을사대전의 판종과 대표 판본의 선정

앞에서는 『경국대전』 판본에 두 층위가 있고, 특히 을사대전은 여러 종의 판본이 존재함에도 주요 참조 판본은 사고본과 만력본, 운각주자본이며, 판본간 글자의 차이가 있을 시 내사본인 사고본 『경국대전』의 글자가 번역이나 연구의 주된 자료로 선택되어 활용되었음을 보았다.

32)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나이토 키치노스케의 지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판본마다 글자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경국대전』의 정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이토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본과 기타 개인 소장본을 열람하였는데, 당시 구할 수 있던 19부의 판본 가운데 총 10종의 판본을 7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교감하였다.[33]

나이토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만력 41년(1613) 내사기가 있는 태백산 사고본『경국대전』을 원본으로 삼아 나머지 판본들을 교감하였다.[34] 이 자료는 앞서 소개한 규장각 소장 사고본이다. 사고본은 나이토가 열람한 판본 중 인출 시기가 이르면서 전질이 갖추어진 유일한 본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본으로 삼아 나머지 본의 글자를 비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나이토의『경국대전』원문 교감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나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당시 나이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10여 종의 판본만을 대조하였고, 그 가운데 대전 6권 전체가 구비된 판본은 사고본 뿐이었다. 또한 관련한 초기 연구였기 때문에 판본들의 간행 시점을 명확히 판별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발견되는 15세기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은 참조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 17세기 이후 본만을 열람하였고, 부족한 부분을『대전통편』과『대전회통』의 내용을 통해 보완하려 하였다. 이는 1485년 을사년『경국대전』으로부터 시간적 간극이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나이토가『경국대전』판본 간 글자 차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판정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이토의 조사 이후에 계속 다양한『경국대전』판본이 발견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종류와 계통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존『경국대전』의 판본을 정리한 연구는 1995년 최복진의 석사 논문[35]이 유일하다. 이

33) 朝鮮總督府中樞院, 앞의 책, 6~9면 참조. 史庫本, 萬曆三十一年刊本, 兵部本, 大丘本, 宋時烈舊藏本, 平壤府開刊本, 芸閣鑄字印本 등이다.

34) 朝鮮總督府中樞院, 앞의 책, 7면. 정확히 하자면 나이토는 태백산 사고본에 닳아서 잘 보이지 않는 자가 있을 시, 사고본과 같은 판본이나 인쇄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김태진씨 소장본을 함께 참조하여 '원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태진씨 소장본은 인출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원본을 사고본이라 명명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고서목록을 검색하여 기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경국대전』의 판본을 연도별로 배열하고, 이를 다시 목판본·활자본·寫本으로 나누어 총 39종(寫本 5종 포함하여 총 44종)으로 정리하고 있다.[36] 여기에 1992년 발견된 신묘대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복진의 연구가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신묘대전을 합하여 판본은 40종, 사본 포함 45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복진의 이 연구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논문에서 정리한 판본 44종(사본 포함)은 단순히 고서목록을 검색하고 거기 수록된 서지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고서목록에서 검색된 44건의 『경국대전』 내용을 정리한 것에 가깝다. 또 고서목록에 기입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 정리 결과도 잘못되게 된다. 실물을 열람하지 못하고 기존 목록만을 나열한 한계는 곳곳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초주갑인자본의 간년을 예종 1년(1469)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책은 성종 15년 완성된 을사대전이므로 예종대에 간행될 수 없다. 또 규장각 소장 운각주자본을 목판본으로 정리하거나 같은 운각주자본을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정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37] 이처럼 개인의 연구로 실물 열람 없이 서지사항 조사 기록만 보고 판본을 완전히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 연구는 당시까지 조사된 고서목록에서 『경국대전』 건수를 모두 뽑아내어 처음으로 목록으로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30년대 나이토가 접했던 19건의 『경국대전』보다, 이후 배 이상 더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현재 여러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경국대전』의 판본은 몇 건이나 될까?

조선총독부 수집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관찬기록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경국대전』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현재 규장각에는 2016년과 2017년에 기탁된 해군사관학교와 한국은행의 도서까지 합하여 총 27건의 『경국대전』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

35) 최복진, 1995 「『경국대전』의 성립과 판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36) 최복진, 앞의 논문, 73-77면, 표 7~10 참조.
37) 규장각의 예로 보았을 때, 잘못된 서지 사항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임이 자명하다.

료는 판본 계통별로 만력 31년본, 사고본, 평양부개간본, 운각주자본 등을 비롯, 간년이 불분명한 본들 10종을 포함하여 14종 정도로 계통을 분류할 수 있다.[38)]

〈표 1〉 규장각 소장 『경국대전』

번호	판본 종류	청구기호
1	만력본 (만력31, 1603)	海士 한 13
2		古複 5121-4-v.1/2
3		奎 26608
4	사고본	奎貴 1864-v.1-3
5		奎貴 2096-v.1-3
6	평양부개간본	奎 188-v.1-3,
7		奎 189-v.1-3
8		古 5121-4F-v.1-2
9	운각주자본	奎 1297-v.1-4,
10		奎 1298-v.1-4,
11		奎 1516-v.1-4,
12		奎 3903-v.5/6,
13		奎 12389-v.1-4,
14		奎 15221-v.1-4
15		古 5120-2-v.1-4
16		古 5121-4D-v.5/6
17	고활자본 (훈련도감자)	奎 2034-v.1-2,
18		奎 3716-v.1-2
19	갑인자 복각	海士 (귀)한 15
20	미상	海士 한 12-v.1-2
21	미상	海士 한 14
22	미상	古 5120-173-v.1-4
23	미상	古 5121-4A
24	미상	古 5121-4B-v.3/4
25	미상	古 5121-4C
26	미상	古 5121-4E-v.1/2
27	미상	한은 96

38) '판본 종류'는 간기로 알 수 있는 판본과 그 복각본, 후쇄본 등을 포함하여 검색되는 서지사항을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규장각 외에 다른 기관 소장『경국대전』의 판본까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39]에서『경국대전』을 검색하면 아래 〈표 2〉와 같은 총 51건의 목록을 찾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규장각 포함 국내 56개 기관, 국외 37개 기관이 소장한 43만 건의 고전적이 한꺼번에 검색된다는 장점이 있다.[40]

〈표 2〉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경국대전』검색 결과

번호	표제	판본 종류	소장 기관	청구기호
1	經國大典. 卷1-3	고활자본 (갑인자)	국립중앙도서관	B2古朝33-26
2	經國大典. 卷1-3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3B-0014
3	經國大典. 卷5-6	목판본 (초주갑인자번각)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2-655
4	經國大典. 卷1-6		동국대 도서관	340.351-경17 340.351-경17 340.351-경17
5	經國大典. 卷1-2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2-656
6	經國大典. 卷1		국립중앙도서관	BA6025-59
7	經國大典. 卷1-6		남평문씨 인수문고	인-1132
8	經國大典. 卷1-5	만력본 (만력 31, 1603년)	고려대학교	육당B7-A4-3
9	經國大典. 卷1-5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33-4
10	經國大典		규장각	26608
11	經國大典. 卷1-6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UC Berkeley Library)	
12	經國大典. 卷1-6		숭실대 도서관	349.1-경1712
13	經國大典. 卷1-6		대구가톨릭대 중앙도서관	동369.11-최91ㄱ
14	經國大典. 卷1-6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2-657
15	經國大典. 卷1-6	사고본	규장각	1864
16	經國大典	평양부개간본	규장각	188
17	經國大典. 卷1-6		中國國家圖書館	13259
18	經國大典. 1-4	운각주자본	충남대학교 도서관	史.政法類-332
19	經國大典		규장각	5120-2
20	經國大典. 卷5-6		규장각	5121-4D-5/6

39)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검색어 '경국대전'.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40) 다만 필자의 경험상, 각 기관의 최신 소장 목록이 반영되어 검색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기호나 제공 정보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經國大典. 卷1-6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도서관 (UC Berkeley Library)	
22	經國大典. 卷3-4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Columbia University Library)	
23	經國大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3B-0014a
24	經國大典		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韓13-39
25	經國大典. 卷1-6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equeNationaledeFrance)	Coréen8
26	經國大典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K2-2062
27	經國大典		日本東洋文庫	Ⅶ-2-223
28	經國大典. 卷1-2, 4-5	[刊寫者未詳]	경상대학교	B13IB-경17-v.1-5
29	經國大典. 册1-4	[刊寫者未詳]	경상대학교	B13IB-경17-v.1-4
30	經國大典. 卷1-6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최항ㄱ
31	經國大典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최항경
32	經國大典. 卷3-4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최항ㄱ
33	經國大典. 卷2-3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최항겨
34	經國大典. 卷5-6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49.14-최항경
35	經國大典. 卷1	[刊寫者未詳]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36	經國大典. 卷5-6	[刊寫者未詳]	고려대도서관	신암B7-A36-3
37	經國大典. 卷1,5-6	[刊寫者未詳]	국립중앙도서관	BA0236-6
38	經國大典	[刊寫者未詳]	규장각	2034
39	經國大典. 卷1-2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1/2
40	經國大典. 卷3-6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F
41	經國大典. 卷1-2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E-1/2
42	經國大典. 卷4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C-4
43	經國大典. 卷3-4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B-3/4
44	經國大典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1-4A
45	經國大典. 卷1-6	[刊寫者未詳]	부산광역시 시민도서관	古369.11-3-1-6
46	經國大典. 卷5-6	[刊寫者未詳]	부산대학교 도서관	2-13-42
47	經國大典. 卷1-2	[刊寫者未詳]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2-659
48	經國大典. 卷3	[刊寫者未詳]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성암2-658
49	經國大典 : 幷續錄・後續錄	[刊寫者未詳]	이화여자대학교	340.951-경17A-1-2, 5
50	經國大典 : 幷續錄・後續錄	[刊寫者未詳]	규장각	5120-173
51	經國大典 : 幷續錄・後續錄	[刊寫者未詳]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33-2

위 〈표 1〉〈표 2〉를 종합했을 때 고활자본 2건,[41] 초주갑인자 번각 6건, 만력 31

년본 9건, 사고본 2건,[42] 평양부 개간본 4건, 운각주자본 계통 16건 등의 6종의 판본과, 간년이 불분명한 24건을 포함하여 30종의 판본이 검색된다고 할 수 있다.

위 목록들은, 전체적으로 『경국대전』의 어떤 판본이 다량 간행, 유통되어 현존본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대략적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표 2〉에서 규장각 소장 『경국대전』 13건을 제외하면 38건으로, 규장각 소장 『경국대전』 27건과 합하면 모두 65건이 된다. 이는 모두 을사대전으로 생각되며, 신묘대전 판본까지 합한다면 『경국대전』 판본은 적어도 66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복진이 수합한 고서목록의 39건(사본 제외)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가 검색되는 것이다.

다만 이 66건의 『경국대전』이 현존하는 판본 전체가 아니라, 검색 시스템에 누락된 자료가 다수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의 판본은 현존 판본을 전수조사하여 전문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판본 정리와 함께 그 내용의 차이도 고찰되어야 한다고 본다.[43]

또, 〈표 1〉과 〈표 2〉에서 보았을 때 『경국대전』의 판본은 고활자본, 초주갑인자 번각본, 만력 31년 간행본, 사고본, 평양부 개간본, 운각주자본 정도의 6가지 계통이 눈에 띄며, 고활자본과 초주갑인자 번각본[44] 외에는 대개 6권의 완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45]

---

41) 이 중 1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활자본은 4장에서 소개하는 ③번 판본에 해당한다.

42) 규장각 소장 사고본이 2종이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는 모두 잡히지 않고 1종만 검색되었다. 이런 오류를 감안하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검색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43) 개인이 단시간에 『경국대전』 판본을 모두 종합, 정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경국대전』 정본화를 위해서는 추후 기관별로 체계적 목록을 작성하고 『경국대전』 판본을 전수조사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4) 초주갑인자 번각본의 경우 동국대 소장본과 남평문씨 인수문고본이 권1-6을 모두 갖추었다고 검색된다. 그러나 〈표 2〉의 3~7번이 모두 같은 판본인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는 예단할 수 없고, 권1-6이 모두 있다고 검색되는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340.351-경17)의 경우 권4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목록만 가지고 책의 형태와 소장 상태를 확신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45) 이 계통 분류는 1930년대 총독부 조사 당시와 유사하기도한데, 총독부 조사시에는 6권

4. 을사대전 대표 판본의 종류와 특징

앞에서 살핀 6가지 계통의 을사대전 판본과 현존하는 전체『경국대전』판본의 층위를 고려했을 때 시기별로 다음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5세기 간행 신묘대전 - 15세기 간행 을사대전 - 16세기 간행 을사대전 - 17세기 간행 을사대전 - 18세기 간행 을사대전 -『대전통편』수록『경국대전』-『대전회통』수록『경국대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신묘대전은 1종만 존재하므로, 이후 을사대전 판본의 종류와 간행 시기별 판본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 위의 흐름에 맞는 대표적 자료를 선정하고 서로 글자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조문을 뽑아 글자를 교감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흐름에 따라 검토할 대상 자료는 아래와 같다.

검토할 자료 첫 번째는 ① 初鑄甲寅字本인 보물 제1521호『경국대전』으로, 곧 신묘대전이다.[46] 이 자료는 개인 소장 자료로 알려져 있다. 조문의 양과 내용으로 미루어 15세기본이자 을사대전 이전 판본이기에, 禮典 1권뿐이 남지 않았지만 200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47] 그러나 이 책은 세간에 알려진 지 약 30년, 보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관련 연구 성과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신묘대전 예전 내용 검토를 통해 을사대전과의 내용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48]

완질본은 사고본밖에 없었다.

46) 이 책의 신묘대전 판정과 관련하여 양혜원, 2017「『經國大典』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經國大典』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규장각』50 참조.

47) 문화재청, 2007,『국보지정분과・건축문화재분과・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상권), 문화재청, 679-684면. 회의록에 소개된 보물 제1521호『경국대전』의 형태사항은 四周單邊에 半郭 25.5×17.2cm, 有界, 大字 10행17자, 小字 20행16자, 註雙行의 黑口, 內向黑魚尾이다.

48) 이 책 전체의 고해상도 사진이 과거「문화재청 문화유산 디지털허브(http://hub.cha.go.kr)」에서 제공되었다. 필자는 이미 2016년에 이 책의 연구를 위해 해당 이미지를 접한 바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최근 위 사이트에서 더 이상 그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것

검토할 두 번째 대상은 ② 타카와 코조[田川孝三] 소장본이다.(이하 田川孝三본) 이 본은 6권 4책의 목판본으로 1971년에 일본 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에서 學東叢書 제6으로 영인된 바 있다. 이후 1983년 국내에서도 아세아문화사 朝鮮王朝法典叢書의『經國大典』으로 영인되었다. 이 국내 영인본 전봉덕의 해제에 따르면, 타카와 코조는 해제자의 동학선배로 임진왜란 전 판각본으로 생각되는『경국대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영인하여 학습원동양연구소의 학동총서와 동일한 영인본을 국내에서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49] 흑백으로 책 내용을 영인하였으므로 책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四周單邊, 有界, 10행 17자에 어미는 대부분 內向黑魚尾로 보인다. 책말 해설에서 이 책의 크기는 34×22cm, 반엽광곽 24.5×17.5cm이며, 판각 연대가 없고 보각판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략 16세기 전반기인 중종~명종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50] 임란 이전의 본으로 판정되는데 비해 전권이 남아있고 책상태도 양호하여 영인된 상태에서도 글자의 판독에 무리가 없다. 내용상으로는 을사대전과 일치하며, 이 책은 현재 발견된 을사대전 판본 가운데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판본은 〈표 2〉의 4번 동국대학교 소장 초주갑인자본(청구기호 340.351-경17)과 상태가 매우 유사하다.[51]

검토할 세 번째 대상은 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주갑인자본이다.[52] 국립중앙

으로 보인다.(최종검색일 2018. 11. 10.) 현재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에서 고화질의 전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크게 참고가 된다.(최종검색일 2018. 11. 10.) 동국대학교 도서관측에 따르면 이 책의 보물 지정 전, 책 소장자의 컬렉션을 전시하였는데, 귀중한 도서가 많아 공익을 위해 도서의 일부를 촬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49)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83『經國大典』, 亞細亞文化史, 해제 20면.

50) 위의 책, 책말에 일본어로 실린 末松保和의「經國大典解說」참고.

51) 동국대 소장 초주갑인자본(청구기호 340.351-경17)은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실물열람은 불가하나 동국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에서 이미지가 제공된다.(최종검색일 2018. 11. 10.)

52) 국립중앙도서관 원본 청구기호 한貴古朝33-26(복사본청구기호 古6021-16).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이하에서 '국중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본은 위 권1~3의 吏典, 戶典, 禮典만 존재하는 영본으로 앞서 〈표 2〉에서 고활자본으로 분류된 1번이다. 이 본은 간기가 없어 언제 간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초주갑인자본으로 보므로[53] 15~16세기에 간행되었음을 우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초주갑인자이기는 하지만 판식에 있어 판심에 內向 黑魚尾에 三葉花紋魚尾가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6세기 후반 간행본일 가능성이 높다.[54] 내용상으로 을사대전이며, 이 책은 현재 알려진 국내 소장 을사대전 판본 가운데 이른 축에 속한다.

검토할 네 번째 판본은 ④ 1603년(만력 31)에 간행된 목판본이다.(이하 만력본) 이 본은 '萬曆三十一年三月日新刊'이라는 명확한 간기가 있으면서 6권 4책이 모두 남아있는 완질로 일명 '만력본'으로 불려왔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를 통해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의 원자료 사진 이미지[55]가 제공되고 있다.

검토할 다섯 번째 판본은 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613년 내사기가 있는 訓鍊都監字本으로 일명 史庫本 혹은 內賜本으로 불리는 본이다.(이하 사고본) 이 본은 보관상태가 양호한 선본의 완질로 태백산 사고본[56]과 오대산 사고본[57]이 모두 남아 있으며 관련한 특징적 사안은 앞서 모두 서술한 바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조해 온 이 자료는, 1613년 간행본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기가 명

53) 천혜봉, 2012『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주), 93-99면. 갑인자는 세종 16년(1434) 처음 주조되며 선조 13년(1580)에 다시 주조될 때까지 매우 오래 사용되었다. 초주 갑인자의 인본은 조선전기 관주인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54) 양혜원, 2017「『經國大典』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經國大典』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규장각』50, 337면.

55)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청구기호 18.10의 고해상도 원문 이미지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E.1603.0000-20090713.AS_BC_018, 최종검색일 2018. 11. 10.) 제공되고 있다.

56)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1864.

57) 규장각 청구기호 奎貴2096.

확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사기에 의해 1613년 사고에 내렸음은 알 수 있으나 판목의 간행이 언제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58]

검토할 여섯 번째 판본은 ⑥ 규장각 소장 1668년 간 목판본이다.(이하 평양본)[59] 이 본 역시 6권 3책의 완질로 '戊申三月平壤府開刊'이라는 명확한 간기가 남아있다.[60] 편의상 이하에서는 '평양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검토할 일곱 번째 판본은 ⑦ 1721년 芸閣鑄字重印本이다.(이하 운각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61] 및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62] 국립중앙도서관[63] 등에 완질이 소장되어 있으며 권6 말에 '辛丑六月日芸閣鑄字重印'의 간기가 남아 있다. 현존본이 많이 남아 〈표 2〉에서 보듯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저 신축년이 1661년인지 1721년인지는 기관마다 판정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토는 이 본을 芸閣鑄字印本으로 명명하였는데, 신축년이 몇 년인지 명확히 단정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이 열람한 판본을 소개하면서 그 배열 순서를 1668년 간 평양본 뒤에 놓은 것으로 보아 1721년으로 판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芸閣은 校書館의 이칭으로, 조선시대 내내 목판의 관리, 서적의 간행, 활자의 주조 등을 담당했던 기관이다.[64] 교서관은 임란 직후 50여 년 정도 기능이 원활치

---

58) 나이토 키치노스케는 자신이 참조했던 '김태진 소장본'이라는 자료가 사고본과 판목이 같으면서 더 이른 시기에 인쇄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고본의 간행년은 좀 더 신중히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9) 규장각 청구기호 奎188, 奎189.

60) 나이토가 참조한 평양부 개간본은 1-2권을 결한 영본이었다.

61) 규장각 청구기호 奎1297, 奎1298, 奎1516, 奎15221. 규장각 해제에서는 이 본들을 일부 서지사항에서 '고활자본'이라 하여 갑인자본 계열이라고 추정하는 듯하나, '신축년'은 대부분 1661년으로 판정하고 있다.

62)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 청구기호 18.9.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서지사항을 보면, 이 운각주자본을 무신자로 보고 '신축년'을 1721년으로 판정하였다.(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E.1721.0000-20090713.AS_BC_019)

63) 국립중앙도서관의 이 본은 6권 6책의 속록, 후속록 합본으로, 홈페이지에서 '經國大典: 幷續錄·後續錄'의 자료명으로 복사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64) 金聖洙, 2009「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서

못했던 시기를 제외한 조선 전시기 동안 서적 간행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판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65] 이 『경국대전』의 경우 간기에서 밝혔듯 금속활자본인데, 갑인자를 다시 주조한 무신자본이다. 갑인자는 위에서 보았듯 1434년 초주된 이래 여러 차례 개주되는데, 4번째 주조가 1688년 戊申年에 이루어진다. 이 활자로 찍은 본이 이른바 四鑄甲寅字本 혹은 戊申字本이다. 흥미롭게도 이 무신자는 金佐明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호조와 병조의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守禦廳에서 주조한 것이다. 김좌명은 적극적으로 활자의 주조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버지 金堉의 저술을 간행하고 업적을 현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66] 이 활자는 김좌명 개인의 착상에 의해 주조되어 김좌명 사후 1년 8개월 후(1672년)에나 교서관으로 옮겨지게 된다.[67] 이 무신자는 임란 후 침체되었다 겨우 부활한 교서관의 활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위의 운각주자본 『경국대전』은 바로 이 사주갑인자, 즉 무신자로 찍은 본이다.[68] 무신자는 1688년 주조되므로 1661년 신축년 간행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초기 무신자본은 판심의 내향어미에 굵은 삼엽화문이 나타나는데 반해, 이후로 갈수록 내향어미에 2엽 화문이 등장하고 활자에 마멸이 생기며 숙종 중기 이래 補字가 혼입된다.[69] 운각주자본 『경국대전』의 경우

지학연구』 42, 182면.

65) 이하 갑인자 및 무신자 관련 서술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여 서술함. 천혜봉, 위의 책; 남권희, 2008 「鑄字所와 鑄字所應行節目」,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성수・이승철, 2008 「교서관의 기능가 조직 및 인쇄활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송정숙, 2008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활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66) 김두종,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304면. 김두종은 무신자의 주조 동기 때문에 이 활자를 '김좌명 활자'라고 부르고 있다.

67) 천혜봉, 위의 책, 191-193면.

68) 무신자본의 목록으로 『경국대전』을 포함하여 제시한 연구는 조소앙, 1979 「韓國鑄字史考」, 『素昂先生文集』上, 횃불사(청주시, 2009, 『2009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학술대회 논문집 :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재수록)이 있다. 조소앙은 1688년 김좌명에 의해 주조된 무신자를 '교서관활자'로 명명하고 그 예시로 『경국대전』을 들고 있다.

판심에서 2엽 화문의 내향어미가 확인되며 활자의 마멸 상태가 간간이 산견되어 무신자 초기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70] 따라서 이 운각주자본 『경국대전』은 1721년 신축년에 重印된 판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운각본 역시 보존 상태가 좋고 완질이 전해지므로 일지사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처 번역 뒤에 『경국대전』 원문으로 이 본을 수록하게 된다.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를 통해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 운각본의 원자료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71]

『경국대전』 판본으로 검토할 본은 위의 신묘대전 한 종과 을사대전의 대표적 판본 5종을 합하여 모두 여섯 종이다. 이에 더하여 참고를 위해 ⑧ 1785년 간 『大典通編』,[72] ⑨ 1865년 간 『大典會通』[73]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⑧⑨에 수록된 『경국대전』의 내용은 『경국대전』 최종본인 을사년 대전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판본 연대를 순서대로 반영하여 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69) 천혜봉, 위의 책, 193-195쪽.

70) 이 판본의 연대 판정과 관련하여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님의 자문을 구한 바 있다. 그 결과 ① 인면 활자의 글자 모양으로 판단할 때 전형적인 초기 무신자라고 보기 어려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② 판심의 어미도 17세기의 형태가 아니고 ③ 무신자의 주조년도 1668년이므로, '辛丑六月日芸閣鑄字重印'의 신축년은 172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후학의 번거로운 질문에 기탄없이 응해주신 남권희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71) 사이트 주소 :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E.1721.0000-20090713.AS__BC__019

72) 京仁文化史編輯部, 1969, 『韓國學基本叢書第7集: 朝鮮王朝法典集3 續大典・大典通編』, 京仁文化史 영인본.

73)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이미지 홈페이지 제공, 『大典會通』 6권 5책.

〈표 3〉 자료 약칭과 판본별 간행 연대

번호	약칭	판본 연대	판사항	권사항	간기	경국대전 종류
①	신묘대전	[1470년]	초주갑인자	1권1책 (예전)	-	신묘대전
②	田川孝三본	[16세기 전반]	목판	6권4책	-	을사대전
③	국중본	[16세기 후반]	초주갑인자	3권2책 (이・호・예전)	-	
④	만력본	만력 31년(1603)	목판	6권4책	萬曆三十一年三月日新刊	
⑤	사고본	[만력 41년(1613) 이전]	훈련도감자	6권3책	-	
⑥	평양본	1668	목판	6권3책	戊申三月平壤府開刊	
⑦	운각본	1721	무신자 (사주갑인자)	6권4책	辛丑六月日芸閣鑄字重印	
⑧	대전통편	1785	목판	6권5책	乙巳孟冬嶺營開刊	을사대전 내용 수록
⑨	대전회통	1865	목판	6권5책	乙丑補輯中外印頒	

※ [ ]는 추정

위 표에서 자료별 번호 및 약칭은 본고에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검토할 판본의 연대와 『경국대전』의 종류가 확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서로 글자 차이가 나는 몇 가지 대표적 조문을 뽑아 글자를 교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현존 을사대전 유통본들은 저마다 글자의 다름이 있어 어느 판본을 참고하는가에 따라 결정적 해석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경국대전』 내에 수록되어 있는 불교 관련 조문을 찾아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글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74] 불교 관련 조문을 포함하여 글자의 차이가

74) 『경국대전』 수록 불교 관련 조문 전체의 판본간 교감 결과는 양혜원, 2017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부록 2〉〉 『경국대전』 불교 관련 조문 참조.

보이는 대표적인 조문이 吏典 정2품아문 육조, 戶曹의 기능으로서 '公賦', 吏曹 文選司의 기능으로서 '僧職', 禮典 度僧 내용, 刑典 禁制의 내용 등이다. 이 조문들의 원문은 다음과 같으며, 세주는 【】, 판본간 다른 글자는 밑줄 글자이다. -표와 번호는 임의로 단 것이다.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 戶曹掌戶口・貢賦・田粮・食貨之政.
- 吏曹文選司 掌宗親・文官・雜職・僧職・除授・告身・祿牌・文科生員進士賜牌・差定・取才・改名及贓汚・敗常人錄安等事.[75]

禮典 度僧
1. 爲僧者 三朔內告禪惑敎宗 試誦經【心經, 金剛經, 薩怛陁】報本曹【私賤則從本主情願】啓聞收丁錢【正布三十匹】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告官 還俗當差. 知而不告者幷罪. o度牒借者與者 依懸帶關防牌面律論】
2. ○禪敎兩宗每三年選試 禪宗則傳燈拈頌 敎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3. ○諸寺住持 兩宗擬數人薦望 報本曹移文吏曹 磨勘差遣 三十朔而遞. 如有所犯 兩宗報本曹 覈實治罪. 犯奸者幷坐薦僧.
4. ○住持遞代時 傳掌. 有破失物徵納.[76]

刑典 禁制
- ○京城內巫覡居住者 閭閻內僧尼留宿者【乞糧・見父母同生輸齋物僧尼勿禁】論罪.[77]

위에서 제시한『경국대전』조문의 밑줄 친 글자들을 위 9가지 판본에서 교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75)『經國大典』吏典 京官職.
76)『經國大典』禮典 度僧.
77)『經國大典』刑典 禁制.

〈표 4〉 판본별 불교 관련 조문 글자 차이

번호	약칭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禮典 度僧			刑典 禁制
		戶曹 貢'賦'	文選司 '僧'職	丁錢價	薩'怛'陀	'拈'頌	'輸'齋物
①	신묘대전	-	-	30	怛	-	-
②	田川孝三본	貢賦	僧職	20	怛	拈	輪
③	국중본	貢賦	僧職	30	怛	拈	-
④	만력본	貢賦	僧職	20	怛	枯	輪
⑤	사고본	貢職	僧職	20	怛	拈	輸
⑥	평양본	貢賦	僧職	30	怛	拈	輸
⑦	운각본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⑧	대전통편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⑨	대전회통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위 표에서 회색 칸의 내용은, 여러 정황상 오류임이 분명한 글자들이다. 『경국대전』 판본별 대표적 조문의 글자 차이를 보여주는 위 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다만, 아래의 판단들은 불교 관련 조문을 위주로 비교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첫째, ① 신묘대전과 나머지 을사대전의 차이가 위 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표 위에 수록한 도승조에서 드러난다. 『경국대전』의 최종본인 을사대전 禮典 度僧 조항은 앞에서 제시한 1~4의 네 가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는 예전부터 이 도승의 조문 구성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度僧'이란 나라에서 僧을 출가시키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흔히 보는 을사대전 도승 조항에는 도첩을 주어 승을 출가시키는 절차 뿐 아니라, 選試에 대한 규정, 住持 임용 방식과 주지 임기에 대한 규정, 주지가 犯法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처벌,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 보전에 대한 규정 등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과연 '度僧'이라는 항목의 개념이 選試와 주지 임명 및 처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의 판본을 검토하던 중, ① 신묘대전을 접하게 되면서 을사대전 도승 조항의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바 있다. 신묘대전은 을사대전 도승조가 복합적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단서를 준다. 즉 ① 신묘대전에는 을사대전 도승 조문 4개 가운데 1번 조문만 수록되고 그 외 2~4의 조문이 없다.

우선 도승 1 조문은 네 가지 조문 중 유일하게 내용상 도승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도승'의 항목에 가장 적합한 도승조의 원 조문이라 할 수 있다. 도승의 2. 選試에 대한 조문은 원래 대전에 수록되지 못하다가 을사대전 단계에 가서 『續錄』 등의 내용을 모두 대전으로 합칠 때 도승 조항 아래로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도승 3과 4 조문의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원래 형전에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들 조문은 을사대전 단계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한 곳으로 모으려 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選試', '住持'와 같은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대신, 원래 있던 度僧 조항 아래로 모아 함께 수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도승 조항에 속한 2~4 조문은 '도승'이라는 항목명에 포섭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도승 조항 아래 수록되게 되었다. 이처럼 '도승' 조항 아래 도승과 무관한 僧政 관련 조문 등을 함께 수록해 둔 것, 이것이 을사대전 도승조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①, ③본 모두에서 『경국대전』 禮典 度僧의 정전가를 정포 '30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사실 정포 '20필' 혹은 '30필'은 그간 학계에서 혼란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정보이다. 위 표에서 특히, 禮典 度僧條의 도첩 관련 조문이 현실에서 작동하던 당시의 판본인 ①, ③본 모두가 정전가를 동일하게 30필이라고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즉 ①, ③본은 도첩제가 시행되던 시기의 판본이고, ④, ⑤본은 17세기 이후의 본이므로 度牒制가 현실에서 행해지지 않던 시기의 본 판본인 것이다.

문제는 ②본인데, 중종~명종 사이의 16세기 전반본으로 추정되는 ②에서는 정전가가 20필로 나온다.[78]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종대의 경우 중종 4년에 『경국대전』을 인출하였고, 이후 중종 11년에 법전에

서 도승조를 삭제하도록 윤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이후 언제 또 대전을 인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6세기 전반본이라고 하는 ②본에서도 16세기 후반본이라는 ③본에서도 도승조는 삭제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②본은 중종 11년 이전본이거나, 도승조 삭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거나, 중종 11년 무렵의 간행 한차례만 도승조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성종 23년(1492) 이래 16세기 전반까지 군액 문제로 도승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정전가가 혼동되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책을 찍어낼 때 '三'과 '二'의 실수일 수도 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시 실록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승이 이루어지던 성종대 실록 기사에서 정전을 '20필'로 기록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경국대전』에 '30필'의 정전 규정이 있다고 기록할 뿐이다.[80] 따라서 ②, ④, ⑤본의 '20필'은 글자의 오류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전체 판본의 흐름으로 보아 '20'필이라고 수록한 ②, ④, ⑤본이 예외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숫자 '三'과 '二'는 비슷한 모양으로 인해 고서에서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또한 17세기 ④, ⑤본 『경국대전』의 경우 도승 정전가 30필이 20필로 잘못 수록되어 있는 것은 17세기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종대 도승제가 시행되었다가 문정왕후 사후 다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사본인 ⑤ 사고본의 경우 17세기 당시 조정에서도 열람하던 본으로 생각되는데, 현종 10년 실록에서 신료들이 정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法典 도첩제의 정전가를 '20필'이라고 언급[81]하는 까닭은 이 ⑤본의 정전가 誤記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잘 모르던 과거의 일을 법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종 당시 현실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문제는, 주로 열람되는 법전 판본의 오류로 인해 오늘날의 여러 정전가 관련

---

78) 앞서 상태가 유사한 것으로 언급한 동국대 소장 초주갑인자본(청구기호 340.351-경17)도권 3의 조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글자가 ②본과 동일하였다.

79) 『中宗實錄』 권27, 중종 11년 12월 16일 壬戌.

80) 『成宗實錄』 권4, 성종 1년 3월 6일 乙酉; 『成宗實錄』 권159, 성종 14년 10월 4일 癸亥; 『成宗實錄』 권261, 성종 23년 1월 29일 庚子; 『成宗實錄』 권260, 성종 22년 12월 7일 己酉 등.

81) 『顯宗實錄』 권17, 현종 10년 12월 22일 辛巳.

연구 성과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경국대전』 번역본들도 완질 선본의 內賜本인 ⑤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경국대전』 정전가를 '20필'로 옮기고 있다.[82] 그 결과 관련 연구 성과들에서도 정전가 정포 '20필'과 '30필'이 섞여서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전가 변동 관련 오류의 연구사는 생각보다 길다. 공교롭게도 근래에 『경국대전』 도승조를 참조하여 조선전기 도첩제를 고찰한 연구들이 여럿 제출되었는데, ⑤ 사고본을 저본으로 한 총독부 교감본 『경국대전』을 참조하여 정전가를 '20필'로 확정하는 경향이 있다.[83] 이는 비교적 최근에 조선전기 도첩제를 단독 주제로 하여 세심하게 고찰한 이승준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84] 이 연구는 정전가 변동 과정을 추적하고, 정전가를 당시 쌀값으로 환산하여 대략의 가

82) 법제처, 1978 『經國大典』, 일지사 ; 윤국일, 1986 『經國大典硏究』,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이 세 편의 번역본 모두가 『경국대전』 3-1조문의 정전가를 정포 '20필'로 번역하고 있다. 곧, 이 번역본들의 저본이 完帙의 善本인 ⑤본 혹은 ④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중 정신문화연구원의 번역본은 저본이 규장각 소장의 ⑤ 사고본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총독부에서 몇 가지 경국대전 판본을 교감하여 펴낸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4 『經國大典』, 朝鮮印刷株式會社 역시 정포 '20필'로 쓰고 있는데, 이는 교감 저본이 역시 ⑤ 사고본이었기 때문이다.

83) 이승준, 앞 논문; 押川信久, 2006 「《經國大典》度牒發給規定の成立」, 『年報朝鮮學』 9; 김용태, 2011 「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 58;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민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중 押川信久, 앞 논문에서는 한 논문 안에서도 정전가 기록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서론에서는 총독부 교감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정포 20필로, 본문에서는 실록의 『경국대전』 인용기사를 인용하며 정포 30필로 적고 있다. 관련하여 押川信久는 조선후기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의 기록 30필과 총독부 교감본 기록 20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혼란한 사료를 모순되게 인용하였다(押川信久, 앞 논문, 각주 26). 한편, 황인규, 2004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22, 289면에서는 『경국대전』을 인용하면서 정전을 '정포 24필'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경국대전』의 어떤 본이 전거인지 알 수가 없다. 혹 논문의 단순한 誤記가 아닌가 한다.

84) 이승준, 2000 「朝鮮前期 度牒制의 推移」, 한국교원대 석사논문(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湖西史學會 재수록)

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논문에서 『경국대전』을 인용하면서 도승의 정전가가 '정포 20필'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⑤ 사고본이나 이를 저본으로 한 번역본을 참조한 것 같다.[85] 이승준은 『경국대전』 판본 誤字인 정포 '20필'을 세종 31년의 실록 DB의 誤字 '정포 20필'과 연결하여,[86] 세종 27년 정전 정포 30필이 세종 31년 정포 20필로 낮아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실린다고 오판하였다.[87] 즉, 이승준은 그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전가를 추적하려 하였으나 '세종 31년 실록 DB'의 오자와 '⑤ 사고본 정전가'의 오자, 이 두 건의 오류 기록을 원자료의 세밀한 확인 없이 수용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二十匹'의 글자는 이후 관련한 주요 연구 성과들에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수용되면서 오류의 결론을 누차 재생산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법전 조문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 원문의 교감과 정본화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그간 학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판본으로 여겨져 온 규장각 소장 ⑤ 사고본은 상대적으로 글자의 오류가 많은 판본이라는 점이다. ⑤ 사고본과 더불어,

---

85) 이승준은 그저 『경국대전』이라고 하였을 뿐, 어떤 『경국대전』을 참조하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아마 사고본 아니면, 널리 쓰이는 총독부 교감본 『경국대전』 [Krpia(http://www.krpia.co.kr) 제공 『경국대전』], 혹은 법제처나 정신문화연구원의 『경국대전』 번역본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자료들에서는 모두 ⑤ 사고본을 전제로 정전가가 정전 '20필'로 수록되어 있다.

86)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庚戌 기사 원자료 이미지를 보면, 정전의 납부를 쓰이지 않는 오승포 대신 '정포 30필, 면포 15필'로 하게 해달라는 기사["其丁錢 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請代以緜布 正布則三十匹 緜布則十五匹."]가 나온다. 그러나 실록 번역과 원문DB에서 세종 31년 기사의 정전가 정포 '三十匹'을 '二十匹'로 잘못 옮기고 있다. 때문에 실록 원자료 이미지를 세심히 확인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오류를 낼 수 밖에 없다. 1964년 한우근의 연구부터, 이재창, 이승준, 황인규, 민순의 등 최근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 정전가 변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 정전가가 정포 30필에서 20필(혹은 면포 15필)로 하락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정포와 면포의 비가 2:1임을 생각하더라도 '정포 20필, 면포 15필'은 부자연스러우며, 실록 원문대로 정포 30필에 면포 15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87) 앞 각주 참조.

전체 판본 자료 중 전질을 갖춘 善本으로서 ④만력본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오자를 내고 있다. ④, ⑤본 모두 학계에서 대표적으로 열람되어온 자료이다. 특히 ⑤사고본에 대한 신뢰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서 당위로서 전제할 정도로 굳건한 것이었다. 관련한 거의 모든 연구 성과가 규장각 소장 ⑤본을 열람하고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경국대전』역시 저본이 이 ⑤본임은 앞에서 지적한 그대로이다.

왜 내사본인 사고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오자가 나고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판본의 간행연대를 통해 그 까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④본은 만력 31년(1603), ⑤본은 만력 41년(1613) 무렵의 간행본이다. 즉, 이 본들은 임진왜란 직후 국가의 많은 전적이 소실되자 국정 수행의 필요를 위해 급하게 찍어낸 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찍어낸 기관은 중앙에서 활자의 주조와 서책 간행을 전담하던 校書館이 아니었다. 교서관은 전란의 영향으로 임란 직후부터 16세기 전반 내내 근 50여 년 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교서관을 대신하여 임시로 인쇄와 출판 기능을 담당하게 된 기구는 훈련도감이었다. 훈련도감 역시 임란 직후 설치된 임시 군사기구였는데, 갑작스레 설치되는 바람에 운영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가 없었다. 훈련도감은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유휴 병력을 활용하여 목활자를 만들고 책을 인쇄하여 경비의 부족을 충당하였다.[88] 훈련도감에서는 임시로 나무활자를 만들어 각종 서책을 간행하게 되는데, 시문집을 비롯하여 대중을 위한 판매용 출간은 물론 전후 국가 전적의 복구를 위한 출간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의 이러한 출간활동이 임진왜란 후 혼란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89] ⑤본의 경우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점을 미루어 이 시기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④본과 ⑤본이 정전가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잘못이 많은 것은 임진왜란 직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출간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서

88) 김두종, 1966「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練都監字」,『진단학보』29·30, 343-348면; 천혜봉, 1993『한국목활자본』, 범우사, 42면.

89) 송정숙, 2009「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서지학연구』42, 269면.

관과 같은 서적 출간 전담 기구에 의한 간행이 아니었으므로 간행 시 글자에 대한 정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교서관이 다시 제기능을 하게 되는 현종 이후의 판본에서는 기존에 판본에서 보이던 실수에 가까운 글자 오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넷째, 18세기 간행된 ⑦본 이후의 자료에서 吏曹 文選司가 담당하던 "僧職의 제수와 고신" 부분의 '승직'이 '贈職'으로 바뀌게 된다. 조선전기에 승직이 제수되고 고신이 나간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90] 또한 15세기 동안 승직의 고신이 나갈 때 서경하던 것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성종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91] 따라서 이조에서 승직의 제수와 고신을 담당하고 있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경국대전』 해당 부분에서 贈職이 아닌 '僧職'이 타당한 글자라 하겠다. 이는 조종성헌으로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려던 당시의 의도를 보았을 때 ⑦⑧⑨본에서 글자를 의도적으로 '贈'이라 바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92]

5. 맺음말

이상에서 『경국대전』의 판본 층위와, 을사대전 대표 판본들의 간행 시기를 검토하고, 판본간 글자의 차이 몇 가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①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사이에 조문의 변화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

90) 전영근, 2007「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30; 川西裕也, 2016「『國朝列聖御筆』所載 조선초기 국왕문서」, 『古文書硏究』 48.

91) 『太宗實錄』 권32, 태종 16년 12월 18일 乙亥; 『成宗實錄』 권94, 성종 9년 7월 16일 乙亥; 『成宗實錄』 권95, 성종 9년 8월 4일 癸巳.

92) 오히려 이 경우, 승직이 제수되던 전례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추정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최근 조선후기 승직 제수 문서 등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명은 조선후기 승직의 임명 주체가 누구였는지 행정체계를 살펴야 하는 문제이므로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급되지 않던 17세기 이전 을사대전 판본을 3건(②, ③, 동국대 소장본) 확인하여 시간적으로『경국대전』완성 당시와 멀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내었다. 또한『을사대전』판본 내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차이는 ②본과 같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급하게 간행된 ④, ⑤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학계의 신뢰도가 높은 ⑤ 사고본은, 적어도 불교 관련 조문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오류가 많음이 분명하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본문에서 보듯, 원자료로서 법전의 글자는 일반 문집이나 기타 기록류의 글자와는 중요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정전가 연구에서 보듯 二나 三의 대수롭지 않은 한 두 획이 연구사 전체를 오류로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경국대전』연구는 무엇보다 현존 판본을 전수조사하고 교감하여 전체 조문의 정본화부터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법제사 연구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튼튼한 토대 위에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료가 되는『경국대전』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는『경국대전』판본 교감을 통한 원문의 정본화에서 시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8. 11. 15),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4)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보물 제 1521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33-26; 동국대 소장, 청구기호 340.351-경17;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18.10;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 奎貴1864, 奎貴2096, 奎188, 奎189;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18.9)
『大全通編』(1785年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 古朝33)
『大典會通』(1865年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 古朝33)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經國大典』, 朝鮮印刷株式會社.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83『經國大典』, 亞細亞文化社.

法制處, 1978『經國大典』, 일지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7『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 논저

김두종, 1966「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練都監字」,『진단학보』29·30.
_____, 1974『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金聖洙, 2009「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42.
김용태, 2011「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朝鮮時代史學報』58.
남권희, 2008「鑄字所와 鑄字所應行節目」,『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문화재청, 2007『국보지정분과・건축문화재분과・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상권), 문화재청.
朴秉濠, 1974,「經國大典의 編纂과 頒行」,『한국사』9(국사편찬위원회 편).
양혜원, 2017「『經國大典』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 보물 제1521호『經國大典』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 -」,『규장각』50.

양혜원, 2017「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국일, 1986『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서원 영인본).
이승준, 2000「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湖西史學』29.
정호훈, 2004「조선전기 법전체제의 정비와『경국대전』의 성립」,『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조소앙, 1979「韓國鑄字史考」,『素昂先生文集』上, 횃불사.
中樞院調査課編, 1936『李朝法典考』, 朝鮮總督府中樞院.
천혜봉, 2012『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주).
최복진, 1995「『경국대전』의 성립과 판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內藤吉之助, 1937「經國大典の難產」,『朝鮮社會法制史硏究』(京城帝國大學法學會 編), 岩波書店.
押川信久, 2006「《經國大典》度牒發給規定の成立」,『年報朝鮮學』9.

3.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동국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Editions of *Gyeongkukdaejeon*

Yang, Hye Won

Immediately after the birth of the Joseon Dynasty, it embarked on integrating a code of law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 result, *Gyongjeyukjeon* was established in 1397. *Gyongjeyukjeon* was repeatedly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long discussions. In 1485, almost a hundred years later, it was finally completed as *Gyeongkukdaejeon*.

Gyeongkukdaejeon was the Code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of Joseon Dynasty. *Gyeongkukdaejeon* was repeatedly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long discussions. Since the first *Gyeongkukdaejeon* had been published, it was revised four times in 1469, in 1470, in 1473, in 1484. These Codes are each called 'gyongindaejeon', 'sinmyodaejeon', 'gabodaejeon' 'ulsadaejeon'. Among these, only sinmyodaejeon and ulsadaejeon were found. Gabodaejeon is known to have been found, but it is unknown where it is.

Ulsadaejeon was the completed version of *Gyeongkukdaejeon*. It had remained the single main code until the next general code Sokdaejeon(續大典) in 1746. Since the first edition of ulsadaejeon had been published in 1484, about 66 editions or more of ulsadaejeon were published in Joseon Dynasty. Among them, there are three sets of Ulsadaejeon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which were first introduced to academia this time. Studies of Gyeongkukdaejeon require that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se various editions of ulsadaejeon.

Key words : *Gyeongkukdaejeon*, sinmyodaejeon, ulsadaejeon, Joseon, Code